

재중 탈북민 강제북송 저지를 위한 긴급 세미나 개최

중국에 억류되어 강제북송 위기에 처한
2천여 명의 탈북민들을 위한 대책 모색을 위해
북한 인권 전문가들 대거 참여

통일준비국민포럼(이하 포럼)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한변)은
아래와 같이 재중탈북민 강제북송 저지를 위한 긴급 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한다.

일시: 2023. 8. 11. (금) 오후 2시

장소: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 19층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코로나 사태로 폐쇄되었던 북·중간 국경이 최근 개방되면서 코로나 사태 동안 중국에 구금되어 있던 2천여 명의 탈북민들에 대한 강제북송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국 난펑과 북한 함경북도 무산을 연결하는 세관이 3년여 만에 다시 개통되었는데, 개방된 이유가 탈북민 북송 때문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이에 2천 명이 넘는 탈북민들이 세관을 통해 강제북송될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포럼과 한변은 긴급 세미나를 통해 강제북송 저지를 위한 대책과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심도 있게 진행할 것이다. 이번 세미나는 개회식, 세미나, 증언 및 선언, 라운드 테이블로 구성, 진행된다.

개회식에서는 강승규 통일준비국민포럼 중앙회장(고려대 북한학과 교수)이 개회사를, 박선기 한변 부회장(유엔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이 환영사를, 김천식 통일연구원장(前 통일부차관)이 축사를, 태영호 국회의원(국민의힘)이 격려사를, 초대 북한인권국제협력 대사를 지낸 이정훈 통일부 통일미래기획위원장(연세대 국제대학원장)이 탈북민 강제북송 위기와 대책을 위한 기조강연을 할 예정이다. 그리고 영국에서 북한인권활동을 해오고 있는 탈북민 출신 박지현 징검다리 공동대표의 증언이 영상으로 공개되고, 강제북송을 겪었던 또 한 명의 탈북민이 세미나에 참석해 직접 증

언을 할 것이다.

탈북민 강제복송 저지를 위한 선언문 발표가 있는 후 이어지는 세미나에서는 손광주 한반도 선진화연대 이사장(前 남북하나재단 이사장)이 좌장을 맡고, ‘재중탈북민 강제복송의 법적 문제점과 대책’을 주제로 탈북민 출신 임철 서울대 공익법률센터 변호사가 발제를, ‘구금된 재중탈북민 강제송환 가능성과 우리의 과제’를 주제로 이상용 데일리NK 디렉터가 발제를 한다. 토론은 인지연 한변 홍보위원장(미국 워싱턴DC 변호사), 이영종 뉴스핌 북한전문기자(포럼 자문위원), 정베드로 북한정의연대 대표가 맡았다.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전문가들의 라운드 테이블도 진행된다. 유호열 고려대 명예교수(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포럼 통일준비연구소 이사장)를 좌장으로 하여, 김석우 북한인권 시민연합 이사장(前 통일원차관), 박선영 사단법인 물망초 이사장(18대 국회의원), 손광주 한반도 선진화연대 이사장, 박선기 한변 부회장(유엔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 허광일 북한인권단체총연합 대표가 라운드 테이블에 참여한다.

2천 명이 넘는 탈북민들의 강제복송 저지를 위해 북한인권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이번 긴급 세미나에 많은 관심과 취재 요청드린다.

2023. 8. 4.

통일준비국민포럼 ·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문의 : 010-4579-7520 (한변 홍보위원장) / 010-4609-5791 (포럼 연구실장)